

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,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 발표 예정 브라질산 닭고기 6.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

-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, 먹거리 물가 등 상승률이 높아 서민·중산층 부담
-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과제라는 인식 하에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
-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 허용(지역화) 절차 신속 추진

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.12(목) 10:00 정부세종청사에서 「물가관계차관회의*」를 주재해 물가상황을 점검했다.

* 참석부처 : 기재부(주재), 농식품부, 해수부, 산업부, 국토부, 행안부, 공정위

이 직무대행은 “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,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”이라고 언급하면서, 물가 상황에 대해 “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%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,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,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어 서민·중산층에 큰 부담”이라고 평가하였다.

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, 가공식품, 외식, 석유류,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, 수급 여건,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 또한,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,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(州 단위)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(지역화)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·개정안*이 행정예고(6.10~20일) 중으로 6.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.

* 「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」 개정, 「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」 제정, 「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」 제정

이 직무대행은 “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기획재정부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	임혜영 (044-215-2770) 연정은 (jeY0903@korea.kr)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	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사무관	최정빈 (044-215-2931) 가순봉 (07mmuser@korea.kr)
농림축산식품부	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배민식 (044-201-2681) 김성만 (bomipapa@mail.go.kr)
	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이연섭 (044-201-2336) 이동민 (ldm0518@korea.kr)
해양수산부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류선형 (044-200-5440) 김수정 (sjcrystal@korea.kr)
산업통상자원부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박한서 (044-203-5220) 김만식 (mansikzang@korea.kr)
국토교통부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강 욱 (044-201-3970) 유찬석 (jabichung@korea.kr)
행정안전부	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신지혜 (044-205-3902) 박진숙 (vision0504@korea.kr)
공정거래위원회	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이승규 (044-200-4300) 박성훈 (sunghoon92@korea.kr)